

혁신적 교육실험 '수퍼스타칼리지' 운영

전주대학교, 단과대학체제 과별·전공별 칸막이 허물고 2~3개 학문 어울린 융합전공 시스템 운영

전주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교육실험에 나선다. 기존 단과대학체제의 과별·전공별 칸막이를 허물고 2~3개 학문이 어울린 융합전공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전주대에 따르면 21세기 사회맞춤형 단과대학인 '수퍼스타칼리지'를 설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혁신본부를 신설한다.

수퍼스타칼리지는 학생과 시대 요구에 대응하는 유연화된 학사 제도이다. 학문 융합형과 기업체 수요형, 지자체 연계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한다.

1학년을 마친 전주대생이면 누구나 수퍼스타칼리지를 지원할 수 있는 데 이번 학기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에 금융보험학과와 간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와 융합으로 '순해시장전문가 육성 전공'을 개설하고 한국어문학과와 영화방송제작학과의 결합으로 '스트리미디어융합전공' 등이 개설된다.

학생들은 기존 학과와 수퍼스타칼리지의 융합전공 등 2개의 학위를 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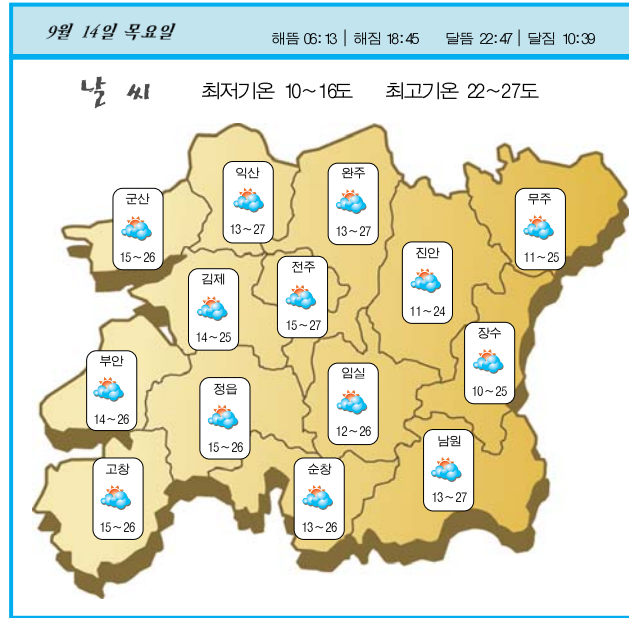


사랑한기득 주먹밥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13일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제13회 사랑한기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호인 전주대 총장은 "수퍼스타칼리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기

업과 기관의 취업으로 연계되는 선택형 원스톱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융합전공

제, 유연학기제, 대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창업아이템 검증 워크숍 '호응'

멘토링 후 9월 25일 15개팀 선정, 최대 1천만 원 지원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김대석)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아이템 검증 워크숍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박은일)가 지원하는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해 창업 기업의 성공 발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행사에서는 창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심층 멘토링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투자 및 창

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대일 멘토링을 거쳐 25일 창업아이템 검증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5개 팀을 선정,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비용으로 사용된다. 김대석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아이템의 고도화를 위하여 이번 워크숍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투자연계 및 연구수업 설립 등 창업 기업에 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16일 주니어 코딩파티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재단·군산시·부안군·서천군이 주관하며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운영하는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이 16일 오후 1시부터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에서 제 1회 주니어 코딩파티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SW 과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SW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초등학교 저학년(3~4학년)과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저학년부, 고학년부 각각 30명씩 선착순 접수한다. 대회는 주어진 미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코딩(사용 프로그래밍 언어:엔트리)으로 구현해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신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도

전의식을 갖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 중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수여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asscienclass)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우수창 센터장(군산대 화학과 교수)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코딩능력이 필수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방향성과 미래산업에 대해 기본 지식과 소양을 쌓기 위해 이제 로봇교육과 코딩은 더욱더 보편화되어야 한다"면서 "미래인재 양성의 작은 발판이 되고 더 많은 경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시, 체납 과태료 내달 10일까지 '특별징수'

전주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와 체납차량 반환관 영치, 부당산·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년 전보다 5억 3000여만원 늘어나고 체납액은 약 43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280여원이 체납해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전체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71여원은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자동차 검사자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자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매월 1.2%씩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담된다. 이에 시는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분

석해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및 부당산 압류와 압류 부당산에 대한 공매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날'로 정하고,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거뒀던 세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교통 분야에 전액 투자된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달라"며 "거주지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급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판근기자

전북과학교육원,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전북과학교육원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올해 대상작을 수상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에 제정돼 26회째를 맞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종래 전주시 인후동에서 익산시 부송동으로 이전해 지난 5월 개원했으며 총 442억원을 투입, 부지 3만2,752㎡, 연건평 1만 4,547㎡(지상4층, 지하 1층)의 교육연수관 및 전시체험관을 갖췄다.

전북과학교육원을 설계한 (주)길건축 사무소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날

개를 피자라는 '은빛나래'의 의미를 담았다.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은하계와 우주를 향한 우주선을 형상화해 은빛나래로 건물의 외형을 표현한 것.

전북과학교육원의 교육연수관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의 4개 첨단 실험실과 3개의 발명실, 수학체험센터, 영재교육센터, 도서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과학교육원이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건축물 사회공헌부문의 대상을 수상했고 민간부문은 현대상하이비전센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정해은기자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나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학교,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